

고구려 복식의 양식 분석

-고구려 바지를 중심으로-

홍 나 영* · 이 미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대학원 졸**

An Analysis of the Style of Koguryo Costume

-Trousers-

Na Young Hong* · Mi-Hyeo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8. 2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yle of trousers of *Koguryo*(高句麗). Trousers of *Koguryo* were called *Go*(袴: trousers) and those had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shape of gusset(*dang*, 襠), width and length of the trousers. Commonly the trousers that had worn by *Koguryo* people had gausset in those bottom not to be shown hip. The gausset was cut triangle or square so if a person wear the trouser with the triangular gausset, the trouser has a pointed hip. Sometimes the trousers had non pointed hips were dicovered in the wall-paintings of the *Koguryo* tombs, they are thought the trousers that had no gaussets or square one. And also there were another trousers that had wide/narrow legs and long/short legs. Trousers of wide legs were called *Gwango*(寬袴) and narrow legs *Sego*(細袴). *Gwango*(寬袴) grew wider over time and in the late age, the trousers were called *Daegugo*(大口袴) with wide ends were worn. Trousers were also decorated elaborately with patches on the edges, leg ties, vents, etc.

Key words: *Koguryo*(고구려), mural, trousers, gusset, patch, *Go*(고), *Dang*(당), *Gwango*(관고), *Sego*(세고), *Daegugo*(대구고)

I. 서론

고구려의 바지는 중국이 호복을 받아들여 袴褶製를 시행한 것과는 다르게 기마, 수렵활동을 위해 입게 된 고구려 복식의 기본요소였다. 이는 고구려의

복식문화가 기마문화와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척도이자, 당시의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바지를 연구함으로써 고구려 당시의 기마, 수렵활동과 복식 관계를 탐구하고, 이것이 중국의 고습제와 구

별해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바지는 대개의 기마민족들이 착용했다고 보는 밀이 달린 바지가 기본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는 특히 노인·우라 바지 유물 등이 보여주는 엉덩이가 뾰족한 형태적 특징이 고분벽화에 잘 나타나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밀이 막힌 바지 외에도 여러 형태의 바지가 착용되었음은 고분벽화는 물론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헌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의 下衣를 나타내는 용어는 袴, 窮袴, 太口袴, 大口袴, 袴大口, 赤黃袴 등이 있다. 이 용어들은 주로 바지통의 너비 정도와 밀이 뚫렸는지의 특징에 따라 구분되어 명명된 것이다.

먼저 고구려의 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여성¹⁾은 窮袴를 細袴, 大口袴를 寬袴로 보았으며, 김동욱²⁾은 窮袴를 현재의 총대바지·잠방이형의 통이 좁은 下庶人의 下衣로 보았다. 유희경³⁾은 窮袴는 총대바지·잠방이류의 폭이 좁은 양복바지류로서 下庶人의 下衣이며, 大口袴는 현재의 한복바지류로서 貴人계급의 下衣이며, 裨은 가랑이가 짧은 잠방이류로 구분한다. 백영자⁴⁾도 窮袴를 통이 좁은 바지류로 裨은 바지 길이가 짧은 잠방이류의 노동복으로 보았다. 또한 이경자⁵⁾는 前期고분은 細袴를, 中期고분에서는 계급에 따라 귀인은 寬袴를 侍者는 細袴를 입는 등 시대와 계급에 따른 구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고구려인들이 착용한 보다 다양한 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위의 선행연구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바지들이 존재했으며, 이는 풍습이나 기후, 편리성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았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이는 또한 생활관습이 다른 중국의 복식과 대조해 고구려만의 바지 착용의 습성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바지를 襠의 형태, 길이, 너비, 장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고, 동시에 주변 국가에서 발견된 바지 유물을 통해 다양하게 착용되었던 고구려 당시의 바지 형태를 그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襠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피혁제의 細袴가 직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마시 밀이 터지지 않게 襠을 부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窮袴로 지칭된다⁶⁾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窮袴의 형태적 특징으로 노인·우라 출토유물에서처럼 부착된 襠으로 인해 엉덩이부분이 삼각형으로 뾰족이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에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뾰족한 襠이 있는 바지 외에도 엉덩이 부분이 뿔뿔하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는 바지들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여러 바지들의 襠에 따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窮袴

王宇清은 중국 고유의 바지는 밀이 뚫린 開襠袴라고 지적하며, 반대로 밀이 막힌 바지를 窮袴라고 이른다⁷⁾고 했다. 특히 『漢書』에 窮袴의 前後에는 當(襠)이 있어 통할 수 없는 것이다⁸⁾고 해 窮袴의 형태가 밀이 막힌 모양새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우라 출토 유물을 유사한 예로 들면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엉덩이 부분이 뾰족하게 나오도록 표현된 바지를 窮袴라고 추정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窮袴가 바지통이 좁은 細袴를 나타내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즉 窮袴가 襠이 부착된 밀이 막힌 바지를 나타낼 뿐이지 바지통이 좁은 細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바지통이 관대해지면서부터는 엉덩이의 뾰족한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무용총에 나타난 窮袴,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2. 이외의 襠이 있는 袴

襠이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窮袴와

같이 뒤가 뽕족이 나오지 않아 외형으로는 褶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지를 고구려인들도 다수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분벽화에도 이렇게 褶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밀이 막힌 바지일 것으로 추측되는 바지들이 여럿 보인다. 특히 바지가 寬大해지면서 褶이 가랑이 사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유형과 褶의 형태가 窮袴에서 보이는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이거나 혹은 아예 없이 두 다리 사이가 붙은 형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바지통이 커져 褶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악3호분의 장하독(그림 2)과 의장기수(그림 3) 등의 인물들이 착용한 바지이다. 이는 바지부리는 좁게 나타나지만 허리부분에는 주름이 질 정도로 넉넉하고 특히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둥글게 표현될 정도로 풍성하게 생긴 바지이다. 이들의 모습은 무용총의 묘주상 <그림 4>에서처럼 그 형태가 차이가 난다. 주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褶의 유무가 窮袴와 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림 2> 안악3호분 장하독,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

두 번째로 褶의 형태가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생각되는 바지이다. 이는 니야 등지에서 발견된 출토유물 중에 유사한 예(그림 5)가 보인다. 이는 褶이 가운데 가랑이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바지통이 그다지 넓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바지통이 거의 일자에 가깝게 아래와 위가 일정하다. 또한 동작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바지 밑 길이가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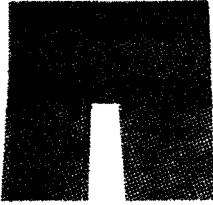
<그림 3> 안악3호분 의장기수,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



<그림 4> 무용총 묘주상,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

이렇게 褶이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추측되는 바지는 덕흥리 고분에 보이는 <그림 6>과 같은 바지이다. 이는 바지통은 그다지 넓지 않고, 저고리 아래로 바지 가랑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양새가 안악3호분의 手搏戲 장면 <그림 7>의 속바지류와 유사하다. 手搏戲 중인 인물이 착용한 속바지는 네모난 천을 주름을 잡아 앞뒤를 가리도록 가랑이 사이로 통과시켜 착용한 모습으로 보인다. 즉 주름을 펴게 되면 이 속바지의 원형은 네모난 천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덕흥리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그림 6>의 바지는 바지 가랑이 부분이 사각형의 褶으로 된 바지임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삼각형의 褶 이외에도 이러한 사각형의 褶이 부착

된 바지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니야 출토 바지 모사도, 출처: 실크로드의 복식 호북

밑이 막힌 바지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밑이 막혔지만 襠이 부착되지 않고 양다리부분을 붙인 형태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1~3세기로 추정되는 니야에서 출토된 바지(그림 11)와 이보다도 훨씬 전인 서기전 1000년경의 哈密五堡 古墓에서 출토된 직통형의 가죽바지(그림 12)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고분 벽화 내 동일 화면에 그려진 인물들은 대부분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 9〉의 바지는 〈그림 6〉와 같이 사각형의 襠이 달린 유형의 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림 6〉 덕흥리 고분 앞칸남벽,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그림 7〉 안악3호분 수박희,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그림 8〉 덕흥리 고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특히 같은 덕흥리 고분내에는 이와 비슷한 형의 바지가 다수 확인된다. 〈그림 8〉은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로 바지의 주름 표현이나 바지통의 너비 정도가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黑巾, 襠 등 〈그림 8〉과 거의 같은 복장을 한 〈그림 9〉 같은 경우 바지의 표현이 거의 일자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이 두 인물은 같은 화면 내에 그려졌는데, 〈그림 10〉의 약간 구부린 동작을 취한 경우에 나타나는 주름의 모양을 보아서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같은 형태의 바지란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경우 모두 襠이 사각형으로 바지통이 그다지 넓지 않은 형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림 9〉의 가랑이 선으로 보아 앞의 니야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밑의 길이가 긴 편이다.

혹은 〈그림 9〉와 같은 경우는 襠이 아예 부착되지 않은 형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저고리를 입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바지를 착용했을 때 엉덩이 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밑이 터진 바지보다는 襠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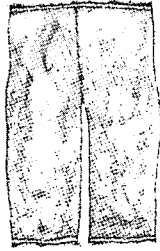
〈그림 9〉 덕흥리 고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그림 10〉 덕흥리 고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그림 11〉 니아출토 바지,
출처: 실크로드의 복식
호복



〈그림 12〉 합밀오보
古基출토 바지, 출처:
한국고대복식

Ⅲ. 바지통의 너비에 따른 분류

흔히 우리 바지의 기원이 가죽제의 통이 좁은 형태에 있다¹⁰⁾고 보고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바지의 경우 바지통의 너비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림 2〉와 같은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넉넉한 유형은 물론 〈그림 9〉와 같은 바지통이 一字이면서 적당한 형태, 또한 몸에 꼭 맞게 표현되는 바지까지 그 너비 정도가 다양하게 보인다. 그러나 문헌상에서 바지통과 관련한 용어로 보이는 것은 大口袴뿐으로 다양한 유형의 바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大口袴를 비롯해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러 바지통의 너비에 따라 구분해 설명하도록 한다.

1. 大口袴

고구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고구려 바지를 나타내는 용어 중 바지통, 혹은 바지부리가 넓다는 뜻으로 생각되는 大口袴, 太口袴, 袴大口 등에 맞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허리부분이나 허벅지부분은 넓어도 바지부리로 내려가면 점차로 그 구멍이 좁아진다. 특히 바지부리에 襠을 장식하거나 주름을 잡아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가 많아 바지부리가 넓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흔히 외관이 직선적이고 여유가 있는 寬袴가 바로 大口袴와 같은 것이라고 규정¹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보통 寬袴와 大口袴가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분벽화상의 大口袴의 예로 들고 있는 바지는 바지 아랫부분이 넓으나 바지부리는 대담과 같은 것으로 묶어 바지 입구는 좁게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바지통 자체가 넓다는 의미에서 寬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大

口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魏書』¹²⁾, 『隋書』¹³⁾나 『舊唐書』¹⁴⁾와 같은 중국 문헌의 설명은 물론 王國維의 『胡服考』¹⁵⁾에 의하면 大口袴는 袴褶制의 下衣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 즉 당시 중국에서 袴褶制로서 착용한 바지, 大口袴는 〈그림 13〉과 같은 무릎아래가 넓고 발등을 덮을 정도로 바지부리가 넉넉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바지부리가 넓은 바지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헌상에 보이는 고구려의 大口袴 기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림 13〉 北齊 陶俑
출처: 中國美術全集:
彫塑編

중국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의 大口袴는 『周書』, 『隋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의 관련 기록에 보이는데 이는 대체로 7세기 이후의 기록들로서 이미 고구려 후기에 이른 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물론 특히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 보이는 『周書』의 기록조차도 7세기 이후의 것으로 大口袴의 기록이 고구려 말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대개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시기에 주로 그려진 고구려 고분벽화들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大口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大口袴라는 명칭의 바지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위의 寬袴式의 바지라는 주장 외에 박선희는 窮袴와 大口袴를 一字형의 직통형으로 같은 형태로 보고 大口袴가 북방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바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말기, 혹은 발해로의 전환기 즈음에 기록된 회화 유물들을 살펴보면 大口袴라는 명칭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王會圖(그림 14), 番客入朝圖(그림 15), 章懷太子墓(그림 16) 벽화, 六尊者像(그림 17) 등과 같은 회화들에 나타난 고구려 말기 혹은 발해초기의 고구려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소매는 물론이고 바지부리가 매우 넓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¹⁶⁾. 즉 大口袴라는 명칭의 바지는 고구려 말기 중국의 영향으로 소매나 바지통이 점차 넓어져, 마치 중국 袴褶制의 바지와 그 형태적으로 유사해진 것을 바지부리[口]가 크다[大]고 이름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王會圖人 (王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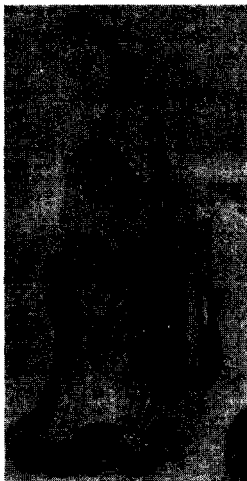
● 番客入朝圖人 (五代筆畫 蘇李師) ● 番客入朝圖 (本館藏)

〈그림 14〉 王會圖의 고구려사신, 출처: 中國疆域的變遷

〈그림 15〉 番客入朝圖의 고구려사신, 출처: 中國疆域的變遷



〈그림 16〉 章懷太子墓의 고구려사신, 출처: 中國歷代藝術



〈그림 17〉 六尊者像의 고구려인, 출처: 中國歷代藝術

2. 寬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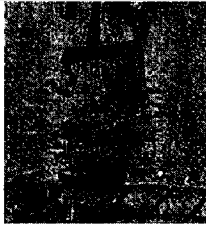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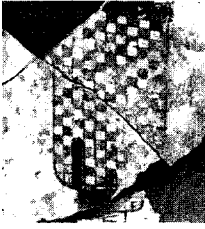



바지부리가 넓은 大口袴와는 다르게 바지통이 넓은 바지를 뜻하는 寬袴는 요즘의 한복바지의 넉넉함만큼이나 품에 있어서 여유로운 형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바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신분이 높은 자들이 주로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림에 따라 바지통의 너비를 표현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寬袴를 구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엉덩이 부분은 寬大한데 바지부리 부분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바지들의 예도 많이 보이고 있어 이들과의 구분 또한 필요하다. 이들을 시대별, 지역별로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은 변화상이 확인된다. 즉 안악3호분의 寬袴는 바지부리로 갈수록 점차로 좁아지는 모양이며, 5세기 전반의 덕흥리 고분 역시 안악3호분에서 보이는 듯한 바지부리가 좁은 寬袴의 형태였다. 그러나 동암리 고분의 寬袴는 이미 바지부리 주변이 넉넉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후 5세기 중후반의 삼실총과 쌍영총에 나타난 寬袴는 이미 바지부리 부분이 寬大해져서 발목을 조인 그 위로 덮을 정도가 된다. 즉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바지부리 부분이 넓어졌으며, 또한 5세기 중반 이후에는 집안·통구 지역은 물론 평양·안악 지역도 바지부리가 넓은 바지를 입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寬袴에 있어서 바지부리가 넓어지는 경향은 지역적 차이보다 시대적 차이로 인해 점차 변화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3. 細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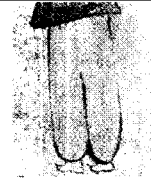




寬袴가 바지통이 넓은 여유가 있는 형태라면 細袴는 바지통이 좁아 몸에 딱 맞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細袴의 이러한 형태는 흔히 피혁으로 만든 통이 좁은 바지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기마에 편리한 복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유형의 바지는 주로 계급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의 노동복으로 주로 착용되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고분에 나타난 細袴의 모습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리에 잘 맞도록 통이 좁게 만들어진 불는 형임을 알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안악3호분에서 5세기 후반의 수산리 고분까지, 평양·안악지방의 덕흥리 고분에서 집안·통구지방의 장천1호분에 이르기까지 細袴의 변

<표 1> 각 고분에 나타난 寬袴의 바지부리 너비 변화

	4세기 중반	5세기 전반	5세기 중반	5세기 후반
집안통구			 삼실총	
순천		 동암리고분		
안악평양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쌍영총

<표 2> 각 고분에 나타난 細袴의 모습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동암리고분	수산리고분	각저총	장천
					
357년	408년	5세기 초	5세기 후반	5세기 초	5세기 중

<표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무릎길이의袴

안악3호분	수산리고분	장천1호분
		

화상은 각 고분벽화별 표현방법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즉 寬袴와는 다르게 바지 형태상의 각 고분별, 시대별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길이에 따른 분류

1. 발목길이

고구려인들이 주로 착용한 바지의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大口袴의 경우 발등을 덮는 길이도 보이지만 대체로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바지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바지들이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바지에 속한다.

2. 무릎길이





고구려의 바지 중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안악3호분의 步行하는 말 몰이꾼과 上衣만 갑옷을 착용한 보행중인 兵士를 비롯해 수산리 고분벽화의 較藝꾼, 장천1호분의 뛰어가는 듯 보이는 인물이 착용하였다.

추위를 대비해 겹으로 바지를 입었을 것이란 사실은 고구려의 경우도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삼실총 力士圖 및 사신총 力士圖 등에도 무릎길이의 袴를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3. 허벅지 위 길이

이 외에도 양쪽 다리를 감싸는 부분은 없이 다리 사이만 가리는 형태의 犢鼻褌이 있다. 杉本正年은 이러한 형태를 일본 훈도시 형태의 바지로 보았으며¹⁹⁾ 이 외에도 짧은 속고의라고 본 박경자를 제외하고 여러 연구자들은 이를 우리나라의 다리속곳 같은 형태로 보았다²⁰⁾. 이는 『漢書』司馬相如傳의 註²¹⁾에 실린 기록에 의하면 '그 모습이 쇠코를 닮아 거기서 이름이 나왔다'고 했으며 『史記』에는 '오늘날 3尺布로 만들며 그 형태가 쇠코같아 이렇게 칭한다²²⁾'고 했다. 또한 『梁書』나 『南史』, 『北史』등에는 더운 철에 특히 밤이 되면 犢鼻褌을 입는다는 기록²³⁾이 나온다. 즉 더위를 피하기 위해 요즘의 속옷과 같이 양쪽 다리를 감싸는 부분을 없앤 犢鼻褌을 입었으나 걸모습 때문에 밤에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표 4〉 각 고분에 나타난 속옷형 袴

안악3호분	무용총	각저총	장천1호분
			

이러한 형태의 바지를 袴이라 이르는 데 袴는 쇠코잠방이형태의 짧은 바지로서 下庶人의 노동복으로 보는 것이 거의 일치되는 견해이다. 袴는 가랑이 길이를 짧게 하고 당을 꿰맨 것으로 곡예사들이나 비천한 일꾼들처럼 웃웃이 짧거나 혹은 웃웃을 입지 않았을 때 입는 일상복이었다¹⁷⁾고 한다. 『三國志』魏書 裴潛傳에 韓宣이 무척 추운날 황제에게 매를 맞는 벌을 받게 되자 袴를 벗길 것을 예상하고 袴를 묶어 허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¹⁸⁾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추울 때에는 袴 안에 袴를 입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魏나라의 기록이지만

이러한 犢鼻褌과 같은 바지는 안악3호분 수박희도, 각저총 씨름도, 무용총 태권도, 장천1호분 씨름도 등에 보이는데 각각의 생김새가 약간씩 다르게 생겼다. 안악3호분과 무용총의 것은 앞·뒤 가리는 부분과 허리선을 이어 만든 것으로 옆선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각저총과 장천1호분의 것은 바지형으로 다리를 넣을 구멍을 낸 후 옆선을 박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V. 기타 장식에 따른 분류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의 바지 외에도 고구려인들이 입은 바지의 특색 중 하나는 <그림 18>처럼 바지부리에 襠을 대어 장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장식적인 효과를 비롯하여 바지부리를 오므려 활동성을 높이고 울이 풀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한 바지부리의 襠 외에도 바지 아랫부분만 따로 재단하여 만든 <그림 19>과 같은 모습도 여럿 보인다. 이는 특히 오염되기 쉬운 부분이라 세탁의 용이함을 위해 아랫단을 따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외에도 <그림 20>의 바지는 바지부리를 오므려 만드는 대신 입고 벗기 편하기 위해서 바지부리에 트임을 준 듯 보인다. 특히 이러한 예는 동



<그림 18> 무용총 중,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그림 19> 약수리고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그림 20> 동암리고분 벽화잔편,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암리 고분 벽화잔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바지 끝에 대님을 매어 여민 것이 아니라 이미 바짓단에 주름을 잡아 襠처리를 하고 트임을 주어 여유있게 만들어 입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만일 대님으로 줄라 묶은 것이었다면 트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이와 같이 고구려의 남자 바지는 襠의 형태, 바지통, 길이 등 전체적인 실루엣을 이루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세부적으로는 장식적이며, 기능적인 부분들이 첨가되어 바지의 종류가 더욱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바지의 모습들을 통해 추론해 보면 바지의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襠의 형태에 따라 삼각무가 달린 窮袴와 이 외에 사각무가 달린 바지도 보인다. 바지통의 너비에 따라서는 후기에서야 등장하는 바지부리와 바지통이 매우 넓은 大口袴와 일반적으로 통이 넓다고 알려진 寬袴, 반대로 다리에 꼭 맞게 통이 좁은 細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길이에 따라서는 발등을 덮는 긴 길이를 비롯해 보통 발목을 덮는 길이의 바지가 보편적으로 착용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길이의 반바지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독바곤과 같은 짧은 속옷바지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바지부리에 異色 천을 대어 실용성과 장식성을 가미한 경우도 보이며, 加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바지는 襠의 형태, 바지통의 너비 및 길이, 장식 및 加襠여부 등에 따라 특징이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바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南史列傳 卷34第24 : 夏月著犢鼻褌
北史列傳 卷81第69 : 常閉戶讀書 暑月唯著犢鼻褌

참고문헌

- 1) 이여성 (1947). 조선복식고. 서울: 범우사, pp. 76-80.
- 2) 김동욱 (1973). 朝鮮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 3) 유희경 (2002).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4) 백영자 (1973). 우리나라袴에 관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11(3).
- 5)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一志社, p. 102.
- 6) 유희경, 김문자 (2000).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敎文社. pp. 12~13.
- 7) 王宇清 (1967).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 pp. 103~109.
- 8) 漢書 列傳 卷97上 外戚傳 第67上 孝昭上官皇后 雖宮人使令皆爲窮袴 多其帶 後宮莫有進者
註: 服虔曰 窮袴 有前後當 不得交通也 師古曰 使令 所使之人也 袴 古袴字也 窮袴即今之緹襠袴也 令音力征反 緹音下昆反
- 9) 김문자 (1994).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서울: 민족문화사.
이경자 (1998). 앞의 책, pp. 101~107.
- 10) 유희경, 김문자 (2000). 앞의 책, p. 12.
- 11) 유희경, 김문자 (2000). 앞의 책, p. 13.
이경자 (1983). 앞의 책, p. 102.
- 12) 魏書 列傳 卷103 補 第91 蠕蠕: 紫納大口袴褶 一具
- 13) 隋書 志 卷12 第7 禮儀七: 紫衫大口袴褶
- 14) 舊唐書 志 卷45 第25 輿服 衣服 侍臣服: 緋褶大口袴
- 15) 유희경, 김문자 (2000). 앞의 책, p. 13에서 재인용.
- 16) 김희정 (1994). 裾과 裳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6~88.
김희정은 돈황에서 발견된 <그림 17>에 보이는 下衣를 근거로 고구려인이 치마를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먼 길을 가야하는 사신은 주로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다른 회화작품에 보이는 사신들의 下衣는 고구려 말기 이전의 細袴였던 바지가 점차로 寬大해져서 大口袴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 17) 王宇清 (1967).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 p. 108.
- 18) 三國志 卷23 魏書23 裴潛傳
時天大寒 宣前以當受杖 豫脫袴 纏褌面縛 及其原 褌腰不下 乃趨而去
- 19) 杉本正年 著, 문광희 역 (1995).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pp. 304~305.
- 20) 유송욱 (1982). 韓國의 服飾.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47~64.
王宇清 (1967). 앞의 책, pp. 103~109.
김인숙 (1987). 바지考. 대한가정학회지, 25(2), p. 3.
- 21) 漢書 列傳 卷 57上 司馬相如傳 第27上
師古曰 卽今之褌也 形似犢鼻 故以名云 褌音之容反
- 22) 史記 三家注 列傳 卷117 司馬相如列傳 第五十七 註
集解韋昭曰 今三尺布作形如犢鼻矣 稱此者 言其無恥也
- 23) 梁書 列傳 卷50 第44 : 後以在省署 夜著犢鼻褌